2012년의 자화상…

동녘의 태양처럼 환한 얼굴로 우뚝 설까?
폭풍우를 이겨내고 구름 사이로 살짝 내밀까?
쥐구멍에도 햇빛이 들어 회색빛을 드러낼까?
먹구름 사이에 숨어 숨을 할딱거릴까?
화려한 비상은 그만두고 학수고대가 웬말인가…

미국이 더블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유럽은 재정위기 확산으로 죽을상이고
중국마저 긴축금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세계경제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당연지사요
환한 얼굴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2030은 신나지 않는 백수요
3040은 삶에 지쳐 헐떡거리고
5060은 죽어라 살았는데 갈 길이 바쁜데
6070은 갈 날이 가까웠으나 갈 생각이 없으니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가득하네…

건축은 이미 회생이 불가하고
오직 희망이라던 반도체도 사그라들고
자동차도 먹구름이 가득한데
태양광 열풍마저 온데간데 없으니
화학소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50년 역사에 불황 한두번이 아니련만
양쪽도 아닌 트리플 불황이 웬 말인가
정밀화학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석유화학까지 막막한데
하소연할 구석도 마땅치 않구나
어찌하여 환골탈태를 생각하지 못했을꼬…

〈화학저널 2012/1/2〉